

전북서 꿈꾸는 귀농·귀촌의 시작

'2024년 전북 귀농·귀촌 상담홍보전' 성료... 맞춤형 상담의 장 마련·청년 정착 자금 활용법 등 실질적 정보 제공

전북특별자치도가 주최하고 전북농어촌종합지원센터 귀농귀촌부가 주관한 '2024년 전북 귀농·귀촌 상담홍보전'이 지난 1일부터 3일까지 전북농어촌종합지원센터 귀농귀촌부 서울사무소에서 개최됐다.

"내가 그만대로 전북 귀농귀촌"이라는 슬로건 아래, 이번 행사는 귀농과 귀촌을 꿈꾸는 도시민과 청년층을 위한 체계적 상담과 실질적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마련됐다.

이번 상담홍보전은 전북 13개 시군이 참여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귀농귀촌 정책과 정보를 제공하며, 참석자들은 개별 부스에서 맞춤형 상담을 통해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었다.

또한, 귀농과 귀촌에 대한 막연한 관심을 현실적인 선택으로 이어줄 맞춤형 상담이 제공되어 참가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이번 행사는 일별 테마로 차별화된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첫날인 귀농귀촌 DAY에는 전북의



전북특별자치도가 주최하고 전북농어촌종합지원센터 귀농귀촌부가 주관한 '2024년 전북 귀농·귀촌 상담홍보전'이 지난 1일부터 3일까지 전북농어촌종합지원센터 귀농귀촌부 서울사무소에서 개최됐다. (사진=전북특별자치도청 제공)

농촌 특성과 귀농귀촌 정책이 소개되어 참가자들의 전반적인 이해를 도왔다.

둘째 날 농촌유학 DAY에는 농촌유학 프로그램과 어린이 미술쇼가 함께

진행되며 가족 단위 방문객들의 큰 관심을 끌었다.

마지막 날 청년스마트팜 DAY에는 청년 농업인과 전문가들이 스마트팜 성공 사례를 토론프서트 형식으로 공

유해 청년들의 공급증을 해소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특히, 귀농창업자금과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자금 활용법에 대한 전문가 강의가 큰 인기를 모았다. 귀농 초기 정착에 필요한 재정 지원, 주택 마련, 농업 기술 습득 등 다양한 맞춤형 상담이 제공되었으며, 참가자들은 이를 통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었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또한, 사전 등록자에게는 전북 특산물과 빵을 증정하는 이벤트가 마련되어 행사의 즐거움을 더했으며, 참가자들은 전북 농산물의 품질을 체험하며 전북 지역에 대한 관심을 높였다.

최재용 전북특별자치도 농생명축산산업국장은 "이번 상담홍보전을 통해 도시민들에게 전북의 귀농귀촌 정책을 효과적으로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며, "앞으로도 귀농과 귀촌을 꿈꾸는 이들이 전북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만호 기자

'행복동행 사회복지공무원 가족'

한의종 사무관-한소영 주무관 부녀

이강희-이선화 주무관 부부 선정

보건복지부가 주관한 '행복동행 사회복지공무원 가족' 선정 결과, 전북특별자치도에서 2가구가 최종 선정됐다.

이번 선발은 대(代)를 이어 또는 동일 세대(世代)에서 복지 증진에 기여한 공로가 있는 사회복지 공무원 가족을 격려하고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한 것으로, 지자체 추천과 예비심사, 현지 실사를 거쳐 전국에서 총 20가구가 최종 선정됐다.

전북에서는 덕진구청과 전북도청에 각각 근무 중인 한의종 사무관과 한소영 주무관 부녀가 2대 사회복지공무원 가족 부문에, 진안군청 소속의 이강희·이선화 주무관 부부가 '부부 사회복지공무원 가족' 부문에 각각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한의종 사무관은 33년간 공직에 몸담으며 저소득층 긴급생계비 지원, 아동친화도시 인증사업 추진 등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 증진에 힘쓴 공로를 인정받았다.

한소영 주무관은 순창군청과 전북도청에서 복지 시작지대 발굴과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보육시설 관리 등의 업무를 책임지며 복지 현장의 원활한 운영과 지원 체계 구축에 기여해왔다.

진안군청 이강희·이선화 부부는 사회복지과와 여성가족과에서 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발달장애인 연계 프로그램 지원 등 군 내 소외계층을 위한 현장 복지업무를 충실히 수행 해오며, 어려운 이웃을 위한 복지서비스 제공에 헌신한 공로로 이번 선정됐다.

전북특별자치도 관계자는 "어려운 근무 여건 속에서도 묵묵히 역할을 다하는 사회복지 공무원들의 헌신 덕분에 전북의 복지정책이 큰 성과를 이루었다"며, "도는 앞으로도 사회복지 공무원들의 공지를 높이고 일선 복지 현장의 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만호 기자

도, 의약품 도매상 불법 유통관리 집중 단속 실시... 15일까지

전북특별자치도 특별사법경찰과는 도내 의약품 유통의 부정·불량 행위 방지와 판매 질서 유지를 위해 4일부터 15일까지 2주간 의약품 도매상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환절기와 겨울철을 앞두고 의약품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선제적으로 의약품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단속 대상은 도내 참고 면적 기준으로 선정된 대·중·소 규모별 표본 40여 개소이다.

이번 단속에서 중점적으로 점검할 사항은 △약사 면허 대여·차용 행위 △의약품 인출 및 보관·수송 시의 품질 관리 △유효기간 경과 의약품의 저장·진열 등이다. 이를 통해 의약품의 품질과 유통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사전에 차단할 계획이다.

약사법에 따라 약사 면허 대여·차용 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의약품 안전 및 품질 관련 유통관리 위반 시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한편, 도는 민생 분야에서 불법 행위를 발견할 경우 전북특별사법경찰과에 전화(280-1399) 또는 안전신문고 앱(www.safetyreport.go.kr)을 통해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만호 기자

도-한국전력, 신재생에너지 확충 '맞손'

신재생에너지 생산·보급 확대 위해... 한전과 업무협약 맺어

전북 에너지 자립도 상승 기대... 한국전력과 협력 체계 구축



지난 1일 전북자치도 중앙협력본부에서 열린 한국전력-전북특별자치도 신재생에너지 추진 상호업무 협약식에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와 김동철 한국전력공사 사장이 참석한 가운데 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지난 1일 전북자치도 중앙협력본부에서 한국전력과 신재생에너지의 원활한 보급과 전력망 확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전북 내 생산되는 신재

생에너지의 원활한 전력계통 연계를 위한 전력망 인프라 확충에 전북자치도와 한국전력이 협력한다는 데 의의를 둔다.

전북자치도는 도내 생산 전체 에너지의 70%가 신재생에너지일 뿐만 아

니라, 전국에서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이 1위를 기록할 정도로 잠재력이 큰 지역이다.

그러나 급격히 증가하는 신재생에너지 생산량에 비해 전력망 구축 속도가 따라가지 못해 현재 전북 지역의 변전소가 계통 관리 변전소로 지정되어 2031년까지 신규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추진이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역 내 신재생에너지를 지역에서 소비하기 위한 배전망 확충이 요구되고 있다.

전북자치도는 이번 협약을 통해 배전망 확충과 계통포화 문제 해소를 위한 기후위기 대응 협력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또한, 앞으로도 전북자치도는 한국전력과 현안 해결을 위한 실무협의체를 구성하고, 협력 사항들을 논의하기 위해 정기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이번 협약은 전북이 지닌 신재생에너지 잠재력을 극대화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으로 나아가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한국전력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전북 신재생에너지의 중심지로 성장시키고, 기후변화의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만호 기자

도,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우수사례 선정

원주교육지원협동조합·김제 꽃다비팜·진안 대화교육연구소

전북특별자치도와 지역사회 서비스 지원단은 '2024년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우수사례 공모전'에서 최종 우수사례 3건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전북 내 다양한 사회서비스 기관이 제공하는 우수사례를 발굴해 지역사회 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마련됐다.

공모분야는 사회서비스 내용·전달·관리체계 고도화와 서비스 성과로, 도내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이 제출한 사례 중 도민 맞춤형 돌봄을 통해 삶의 질 향상에 효과적인 서비스를 제공한 사례가 선정됐다.

이번에 선정된 사례는 전북의 지역

주민들에게 맞춤형 복지를 통해 삶의 질 향상을 실현한 기관들로, 특히 청·중장년층과 노인을 대상으로 한 일상 돌봄 서비스가 돋보인다.

선정된 주요 사례로 원주교육지원협동조합(전주)은 질병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청·중장년을 대상으로 하는 맞춤형 운동프로그램을 제공했다.

김제 꽃다비팜은 돌봄이 필요한 청년을 대상으로 농장지원을 활용한 치유농업 프로그램을 제공했으며, 진안에 위치한 대화교육연구소는 65세 이상 노인의 건강상태에 따른 신체적 질환 예방 운동프로그램을 제공했다.

/이만호 기자

재난예방 민간예찰단 역량강화 워크숍 개최

전북특별자치도가 1일 정읍시 JB금융그룹 아우름 캠퍼스에서 '2024년 재난예방 민간예찰단 워크숍'을 개최하며, 지역사회 재난 예방과 안전 활동에 헌신하는 민간예찰단의 성과와 역할을 조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워크숍에는 운동목 도민안전실장을 비롯해 시군 담당 직원과 재난예방 민간예찰단 등 약 120명이 참석했다.

이번 행사는 각 시군별로 선발된 재난예방 민간예찰단원 14명에 대한 도시사 표창을 시작으로, 군산시와 무주군의 대한민국 안전대전환 집중안전점검 우수사례 발표 및 재난 예방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등으로 이어졌다.

또한 전주대 소방안전공학과 최홍석 교수와 정읍소방서 임병환 대응예방과장 강연을 진행했다. /이만호 기자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www.jmaail.com